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생과 부모, 학생과 교사 관계의 매개효과: 초·중학생 차이를 중심으로

최경일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mediative effect of student-parent, student-teacher relationship on the effect of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on depression: Difference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Kyung-Il Choi
Dept. of Social Welfare, Hall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에서 학생이 부모나 교사와 맺은 관계가 이를 매개하는지를 구조적으로 검증하는 것과 동시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의 경로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수집한 12세~18세의 청소년 자료 중 1,385명에 해당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구조방정식의 다집단 분석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초등학생이 부모나 교사와 맺은 관계가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였지만, 중학생이 부모나 교사와 맺은 관계는 부정적인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나 교사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서 초등학생이 겪는 우울에 대해서 부모나 교사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중학생에게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서 우울을 더 많이 겪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와 이로 인해서 겪는 우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제적인 역할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학교폭력, 우울, 초등학생, 중학생, 부모, 교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mediative effects of students' relationship with parents or teachers in the effective path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on depression, and to find out the path difference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We used 1,385 students' data collected from the Korean Youth General Survey, and analyzed by multiple group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lationship with parents or teachers did not play a mediative role. But the middle school students' relationship with parents or teachers play a negative mediative role. It means that if students were damaged by school violenc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did not play a specific role but middle school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caused more depression. Based on these results, some implications for parents and teachers about school violence and depression were suggested.

Key Words : Damaged by school violences, Depression, Relation with parents, Relation with teachers, Difference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Received 15 February 2017, Revised 23 March 2017
Accepted 20 April 2017, Published 28 April 2017
Corresponding Author: Kyung-Il Choi(Halla University)
Email: kichoi@halla.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으면 심리적인 어려움과 갈등을 이기지 못하여 보복성 범행을 일으키거나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이에 관련하여 전국 5,95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50%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1]. 그리고 이 중에서 42.9%의 학생들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는 학교폭력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심리적 상황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하거나 시도하게 하는 요인으로 우울을 꼽고 있다[2,3,4]. 즉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상태를 불행하게 느끼면서 슬프거나 무기력한 감정을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우울이 자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해서 그만큼 우울한 감정을 많이 겪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 1,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5]. 즉 학교폭력의 피해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신에 대한 인식, 친구를 비롯한 가족이나 교사와의 대인관계, 학교에서의 학습태도나 참여 등 일상생활에 폭넓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이러한 갖가지 부정적인 양상들의 이면에 자리하는 우울을 야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6,7].

학교폭력 피해가 우울을 야기하는 주된 이유는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가해자에 대한 반항감을 갖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싶지만 반전을 꾀할 만한 계기나 주변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장소 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중

합적으로 고려하면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발생을 예방하는 대책과 동시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우울을 겪는 정도가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8,9,10]는 점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우울을 겪지 않도록 하거나 그 수준을 경감시키는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 선행연구들[7,11,12,13]은 개인이 갖고 있거나 개인의 주변에서 작동하는 도움의 제공원인 보호요인이 상이하기 때문에 유사한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했더라도 우울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해석한다.

청소년의 보호요인에는 자기보호요인을 비롯하여 가족, 친구, 학교 및 지역사회 보호요인이 있다고 여겨지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청소년 자신의 내적인 특성, 즉 자기보호요인을 발휘하고 그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높이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14,15]. 그러나 이것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피해를 입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을 전가할 위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게 작용하는 보호요인을 이들의 생활 근거인 가족과 학교에서 먼저 탐색하고 그 효과를 개인에게 확장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이에 관해서 여러 연구들[16,17]은 부모의 지원과 청소년기의 적응 사이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어서, 부모가 청소년을 지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연구[18]에 따르면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학교폭력의 피해 수준은 낮아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외에도 고등학생 4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16]는 청소년들이 부모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지지적인 관계를 맺으면 학교폭력의 피해를 통해서 겪게 되는 우울의 수준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추는

조절효과가 있다는 더욱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보이는 태도 역시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적인 면은 물론이고 심리적이고 인격적인 면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학생은 높은 학업 동기를 갖게 되고 학교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를 갖는다[19]. 교사로 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은 학생은 타인에 대한 공격이나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학교폭력과 같이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더욱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 노르웨이의 13세에서 15세 청소년 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격려와 관심을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집단 따돌림을 받을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러한 사실은 국내의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는데, 부산의 중학생 9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21]나 서울의 중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22]에 따르면 교사가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많이 갖고 있으며, 학생들과 친밀하고 활발한 상호관계를 가질수록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서 심리정서적 혹은 육체적인 면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부모나 교사에게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면 우울 수준이 감소한다는 것으로서 가족과 학교 보호요인의 역할을 알게 한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와 대책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18.2%에 달하는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자들은 학교폭력을 처음 당한 시점을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답하였다 [1]. 이는 학교폭력 최초 피해 시점이 중학생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처음 접어든 2013년 조사 결과보다 더 낮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초등학교 후기부터 학교폭력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기 시작한다는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경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진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아서 초등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중·고등학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진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을 초등학생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앞서 밝힌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생과 부모 및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비교를 통하여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우울을 비롯한 부수적인 문제를 겪지 않도록 부모와 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12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 중 1,385명에 해당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version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후 AMOS 18.0 version을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다른 아이들이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며 나를 놀리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를 포함한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 4점 척도에 응답하여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68$ 이었다.

종속변수인 우울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피하고 우울해 한다’ 등과 같이 우울의 대표적인 행동 양상인 무력감이나 비애감 등을 나타내는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 3점 척도에 응답하여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583$ 이었다.

매개변수인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한다’를 포함한 8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교사와의 관계는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존

경한다'를 포함한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 4점 척도에 응답하여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각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9과 cronbach's α =.578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227명, 중학생은 1,100여 명이였다. 초등학생은 6학년이 많았으나, 중학생은 각 학년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초등학생의 숫자가 적은 것은 이들이 설문지를 해독하기 어려웠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별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성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못한다는데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고 보통에 다수가 분포되어 있었으나, 다만 초등학생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9.6%는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고 응답하였다. 월소득은 100만원 미만부터 400만원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각 소득 구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Respondents

	category	elementary	middle
grade	5	12(5.3)	0(0)
	6	215(94.3)	0(0)
	1	0(0)	384(33.2)
	2	0(0)	387(33.4)
	3	0(0)	386(33.4)
sex	male	120(52.6)	564(48.7)
	female	108(47.4)	593(51.3)
record	good	113(49.6)	325(28.3)
	normal	103(45.2)	687(59.8)
	bad	12(5.3)	136(11.8)
income	under 1million	38(16.7)	248(21.4)
	1million	48(21.1)	256(22.1)
	2million	41(18.0)	141(12.2)
	3million	50(21.9)	219(18.9)
	over 4million	45(19.7)	246(21.3)

3.2 연구모형 분석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각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hi^2=1544.291$ 이고

자유도는 366, $p<.001$ 으로 모형이 자료에 합치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χ^2 값을 통한 적합도는 사례 수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보다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다른 적합도 지수를 파악한 결과, TLI=.912, CFI=.906, RMSEA=.048로 나타나서 측정모형은 경험적 자료에 부합하였다.

또한 구조모형이 경험적 자료를 잘 반영하는지 알기 위해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chi^2=1602.332$, 자유도는 368, $p<.001$ 으로 모형이 자료에 합치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χ^2 값을 통한 적합도는 사례 수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이 역시 보다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다른 적합도 지수를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 TLI=.907, CFI=.902, RMSEA=.049로 나타나서 구조모형은 전반적으로 자료에 합치하는 적합한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다중집단 분석

3.3.1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모형 동일성 검증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의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증 방법을 통해서 모형의 동일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우선 측정모형에서 각각의 잠재변인에 걸리는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과 기저모형의 χ^2 값과 자유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χ^2 값의 차이는 21.72, 자유도의 차이는 17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에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어서 측정도구들이 양 집단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경로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이는 모든 구조계수까지 동일화 제약을 가한 후에 측정동일성 모형과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 결과, χ^2 값의 차이는 25.46, 자유도의 차이는 21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서 구조계수 동일성이 채택되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서 구조계수 동일성이 성립되었으며, 이는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가 두 집단에 모두 적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 model identification verification

model	χ^2	df	TLI	RMSEA
base model	1622.717***	366	.912	.048
measurement identification	1644.437***	383	.909	.049
structure identification	1669.897***	404	.912	.048

3.3.2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경로계수의 비교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의 모형 동일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경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beta=.448^{***}$), 학교폭력의 피해를 많이 입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등학생들이 부모와 맺는 관계($\beta=-.350^{***}$)나 교사와 맺는 관계($\beta=-.275^*$)는 각각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학생이 부모나 교사와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면 우울 자체의 수준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만,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울의 수준을 경감시키지는 못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paths coeffici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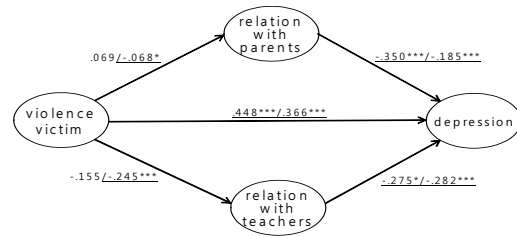
paths	elementary	middle
victim of violence→depression	.448***	.366***
victim of violence→relation with parents	.069	-.068*
victim of violence→relation with teachers	-.155	-.245***
relation with parents→depression	-.350***	-.185***
relation with teachers→depression	-.275*	-.282***

* p<.05 ** p<.01 *** p<.001

중학생의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366^{***}$).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중학생이 부모와 맺는 관계($\beta=-.068^*$)나 교사와 맺는 관계($\beta=-.245^{***}$)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이 부모($\beta=-.185^{***}$)나 교사와 맺는 관계($\beta=-.282^*$)는 각각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가 나빠지며 우울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Fig. 1]에 정리하였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가 우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학교폭력의 피해가 중학생이 경험하는 학교폭력의 피해보다 더 많은 우울을 야기한다는 것으로서, 최근 들어서 학교폭력 발생이 초등학생에게서 증가하는 최근의 경향에 비추어 봤을 때 초등학생이 처해 있는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알게 한다. 학교폭력 피해가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생의 경우에만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와의 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은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초등학생이 부모나 교사와 맺은 관계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우울을 매개하지 못하였지만, 중학생이 맺은 관계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울을 매개하였다.



[Fig. 1] Structural model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이들이 각각 부모나 교사와 형성하는 관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와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에 경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르는 연구 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서 최근 초등학생에게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현실과 우울이 미치는 각종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특별히 초등학생들을 학교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 학교폭력의 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이자 매개변인으로 부모와의 관계와 교사와의 관계를 투입하여 검증한 결과, 초등학생에게서는 이 두 가지 변인들이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즉 초등학생이 부모나 교사와 맺은 관계는 초등학생의 우울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하였지만,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서 겪는 우울 수준을 낮추는데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나 교사가 초등학생의 심리정서적인 원조자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초등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입는 피해가 심각하고 증가 추세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둔 부모와 교사는 최근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어서 초등학생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실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이나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최근의 부모나 교사 교육은 진로나 학업 등에 관한 주제가 많은데, 아무리 탁월한 학업성적을 갖더라도 학교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할 각종 교육에는 초등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내용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부모와 교사는 상대적으로 저연령의 초등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강조하기 보다는 이와는 반대되는 긍정적인 양상인 공동체성을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하고 실천해야 한다. 공동체성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배려는 물론이고 학교활동에 참여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공동체성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유용한 단서가 될 것이다. 그동안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은 이러한 것이다’라든지 ‘또래 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폭력을 행사하면서 안 된다’는 식의 내용을 강조하던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교육 방식과 접근은 학생들이 학교를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고 친구나 또래를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여 그렇지 않아도 학업성적으로 인해서 초등학교조차도 경쟁적인 문화가 지나치

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효과적이다.

이에 대신하여 학교나 일상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낼 때 어떠한 모습이 바르고 옳은 태도인지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더욱 많은 효과를 낼 것이다. 최근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데, 이를 학생 중심의 교과 교육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에 따른 행동을 수용하며 각자의 욕구를 수렴하여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현하려는 총체적인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모와 교사가 현재처럼 초등학생의 우울을 조절하는 사후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그 원인이 되는 학교폭력 자체에 대해서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사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중학생이 부모나 교사와 맺은 관계가 학교폭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오히려 촉진한다는 점에서 볼 때, 중학생을 둔 부모와 교사의 역할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학교폭력 발생의 근거지가 학교라는 점에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특별히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즉 부모와 교사가 협력을 이루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그동안 여러 연구들[23,24]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법으로 강조되어왔으나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대안으로 선언되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미흡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안을 이미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배치된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복지상담 전문가가 교사와 협력하고 융합하는 역할에서 찾고자 한다. 그동안 학교교육은 물론이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와 가정 간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었지만 교사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쉽게 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에 교사와는 다른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학교와 가정 간의 매개자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관련된 혹은 그런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을 심리

상당하는 것 외에도 가정방문, 부모상담, 부모교육 혹은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의 형식을 통해서 자녀문제의 원인이 되는 가족의 부정적인 상황이나 여건들을 개선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학생에게 일어나는 학교폭력 자체에 대해서도 부모와 교사가 새롭게 인식을 해야 할 것인데, 학교폭력을 청소년기에 누구나 거치는 홍역 정도로 평가절하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자녀나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행동적이고 심리적인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지 혹은 평소에는 없던 신체적 외상이 생겼는지 등에 대해서 잘 관찰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에 관련된 문제를 겪는다고 여겨질 때는 부모나 교사가 과도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지 말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지지적인 태도로 사태를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우선하여 평소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교사가 학생들과 일관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때 사춘기의 중학생들은 부모와 교사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부모로부터의 정서적인 독립을 원한다는 이중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나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녀 혹은 학생의 욕구와 특성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모와 교사가 중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보호요인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초등학생의 표본 숫자가 중학생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중학생의 숫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표집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부모나 교사와 형성한 관계에 국한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요인들을 포함하면 좀 더 풍부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의 학교폭력은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자체만을 분석했을 뿐 그 형식이나 피해 정도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차후의 연구에서는 최근의 학교폭력 발생 경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분석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Foundation for Youth Violence Prevention, "2015 National report of school violence survey report and trend." 2015.
- [2] E. J. Lee, E. S. Lee, "Correlation between alienation and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delinquency in high school students." Vol. 9, No. 1, pp. 56-65, 2002.
- [3] M. Bolognini, B. Plancherel, J. Laget, & O. Halfon, "Adolescent's suicide attempts: Populations at risk, vulnerability and substance use." Substance Use & Misuse, Vol. 38, No. 11-13, pp. 1651-1669, 2003.
- [4] L. Greening & L. Stoppelbein, "Religiosity, attributional style, and social support as psychosocial buffers for African American and white adolescents' perceived risk for suicide." Suicide and Life Threat Behavior. Vol. 32, No. 4, pp. 404-417, 2002.
- [5] J. Y. Kim & K. Y. Lee,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drinking and smoking on school violence: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interact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2, No. 2, pp. 53-74, 2010.
- [6] J. Y. Park, "The mediational effects of resiliency on school violence causing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e: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1, No. 1, pp. 168-193, 2010.
- [7] J. Ozer & S. Weinstein, "Urban adolescents' exposure to community violence: The role of support, school safety, and social constraints in a school-based sample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Vol. 33, No. 3, pp. 463-476, 2004.
- [8] R. Crick & A. Bigbee,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A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6, No. 2, pp. 337-347, 1998.
- [9] D. Flannery, K. Wester & M. Singer, "Impact of exposure to violence in school o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behavior."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2, pp. 559-573, 2004.

- [10] D. Gorman-Smith & P. Tolan, "The role of exposure to community violence and developmental problems among inner-city yout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10, No. 1, pp. 101-116, 1998.
- [11] S. Luthar, D. Cicchetti & B. Becker,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Vol. 71, No. 3, pp. 543-562, 2000.
- [12] E. Ozer, "The impact of violence on urban adolescents: Longitudinal effects of perceived school connection and family suppor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20, No. 2, pp. 167-192, 2005.
- [13] M. K. Kim, "Relationship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tress, depression, family resilience and internet game addi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1, pp. 205-210, 2016.
- [14] L. Kumper & R. Alvarando, "Strengthening families to prevent drug use in multi-ethnic use." University of Utah, 1995.
- [15] E. Werner & S. Smith, "Overcoming the odd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 [16] E. H. Lee, T. S. Choi & M. J. Seo, "Effects of stress related to school, self-esteem,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and parents' internal support of adolescent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2, No. 2, pp. 69-84, 2000.
- [17] K. Barber & C. Rollin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0.
- [18] S. Y. Yoon & M. S. Yoo,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on adolescents's emotional/behavior problems: General strain theory."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Vol. 14, No. 4, pp. 59-75, 2011.
- [19] J. Hughes, T. Cavell & V. Willson, "Further support for the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the quality of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39, No. 4, pp. 289-301, 2001.
- [20] G. Natvig, G. Albrektsen & U. Qvarnstrom, "School-related stress experience as a risk factor for bullying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0, No. 5, pp. 561-575, 2001.
- [21] Y. S. Lee & K. N. Lee, "The individual variables,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al variables that affect victimization by peer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13, No. 5, pp. 1-14, 2004.
- [22] E. Y. Kim, "The effects of school climate on peer victimization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26, pp. 87-110, 2008.
- [23] S. A.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family, school, peer-related variables, and school viol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4, No. 1, pp.101-126, 2007.
- [24] E. H. Lee, S. J. Kong & J. S. Lee, "Relationships among socio-environmental school violence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 and bullying at school: Testing a mediational model of anger control and contact with delinquent friend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6, No. 1, pp.123-145, 2004.

최 경 일(Choi, Kyung Il)



- 1999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08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8년 8월 ~ 현재 :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청소년복지, 학교사회복지
- E-Mail : kicho1@halla.ac.kr